

2024학년도 1학기 문헌연구보고서



정치적으로 고립된 젊은 세대 — MZ세대 정치적 고립의 원인과 그에 대한 해결방법

이름	장동하
전공	경영정보
학번	20242647

정치적으로 고립된 젊은 세대

MZ세대 정치적 고립의 원인과 그에 대한 해결방법

장동하 (경영정보학과)

<목차>

- I. 서론
- II. 세대별 정치 효능감 차이 및 원인
 - 1. 정치 참여도 및 정치적 입장 분석
 - 2. 정치 효능감 차이의 원인
- III. MZ세대 정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
 - 1. 제도적 방안
 - 2. 사회적 방안
- IV. 결론
- V. 참고문헌

I. 서론

이 글에서는 20~30대로 대표되는 젊은 세대가 정치적 고립감을 느끼게 되는 원인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자 한다. 세대별 정치 관심도는 20대 41.5%, 30대 45%, 40대 51.5%, 50대 58.5%, 60대 67.5%다¹. 또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각 세대별 투표율은 20대 71.0%, 30대 70.7%, 40대 74.2%, 50대 81.4%, 60대 87.6%, 70대 86.2%다². 청년층의 정치 관심도와 중장년층(50~60대)의 정치 관심도 차이는 대략 10%p 차이가 나고 이는 투표율에서도 마찬가지다. 1980년대부터의 대선 결과를 보면, 1,2위 후보 간의 차이는 17대와 19대 대선을 빼면 10%p 이내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³. 즉, 정치에선 10%p 차이만 나도 대선 결과가 바뀌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데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정치 관심도와 투표율이 10%p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청년층의 정치적 힘이 중장년층의 힘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청년층의 정치적 의사가 정치권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므로 청년층의 정치적 소외를 촉진시킨다. 청년들이 정치관에서 소외되면 정치인들은 더 이상 청년들에게 신경

¹ 트렌드모니터(2018.05.30), 「'정치'로부터 다시 거리를 두려는 유권자들? 일상적인 정치에 관심히 필요해」, <https://trendmonitor.co.kr/tmweb/trend/allTrend/detail.do?bidx=1687&code=0404&trendType=CKOREA> (2024.06.13).

² 이재윤(2022.09.30), 「2022대선 투표율 분석 결과」,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GYH20220930001000044> (2024.06.13).

³ 김정률(2022.03.09), 「1985년 이후 역대 당선인 득표율은...과반 득표는 박근혜가 유일」,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203090958265500> (2024.06.13).

을 쓰지 않아도 되므로 청년들에 대한 투자를 줄일 것이다.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에 대한 투자를 줄인다는 것은 곧 국가의 잠재력을 소멸시킨다는 것과 같으므로 청년층의 정치적 고립은 국가 쇠퇴의 시발점이 된다.

위 주제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정치적 세대갈등의 오해와 이해(김재한)」⁴가 있다. 위 논문에서는 각 세대별로 정치에 관심을 갖는 요소를 연령(age), 시대(period), 그리고 출생시기(cohort)로 나누어 분석했다. APC를 사용한 대표적인 용어들 중 하나는 바로 386세대이다. 386은 30대(A), 80년대를 겪음(P), 그리고 60년대생(C)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위 논문에 따르면 사람들의 정치 성향, 정치 관심도를 비롯한 정치에 대해 지니는 인식은 세대별 효과보다 연령별 효과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이 글에선 위 논문과 다르게 세대별로 겪은 역사적 사건들을 중심으로 왜 청년 세대가 정치적으로 고립되게 되었는지를 2장에서 분석하고 3장에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도적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제시할 것이다.

II. 세대별 정치 효능감 차이 및 원인

1. 정치 참여도 및 정치적 입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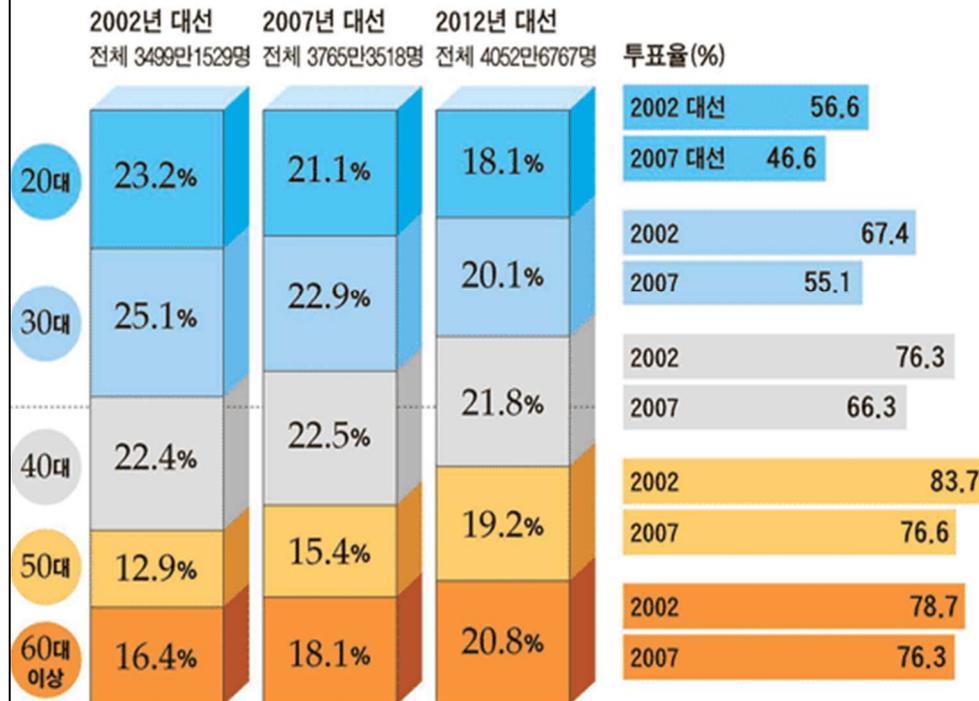
이 주제를 다루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정치 효능감'이다. 정치 효능감⁵이란 본인의 정치참여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정치 주체들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을 뜻한다. 정치 효능감과 정치 참여도는 비례적 관계를 갖는데 그 이유론 사람들은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본인들의 에너지만 낭비하는 비효율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고로, 사람들은 본인의 정치 참여가 정치판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경우 정치에 관심 갖는 것을 포기한다.

⁴ 김재한(2006), 「정치적 세대갈등의 오해와 이해」, 『의정연구』 12-2,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35-155p.

⁵ 박권일(2018.04.12), 「[박권일, 다이내믹 도넛] 효능감 게임」,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840343.html> (2024.06.01)

저출산·고령화... 달라진 세대별 유권자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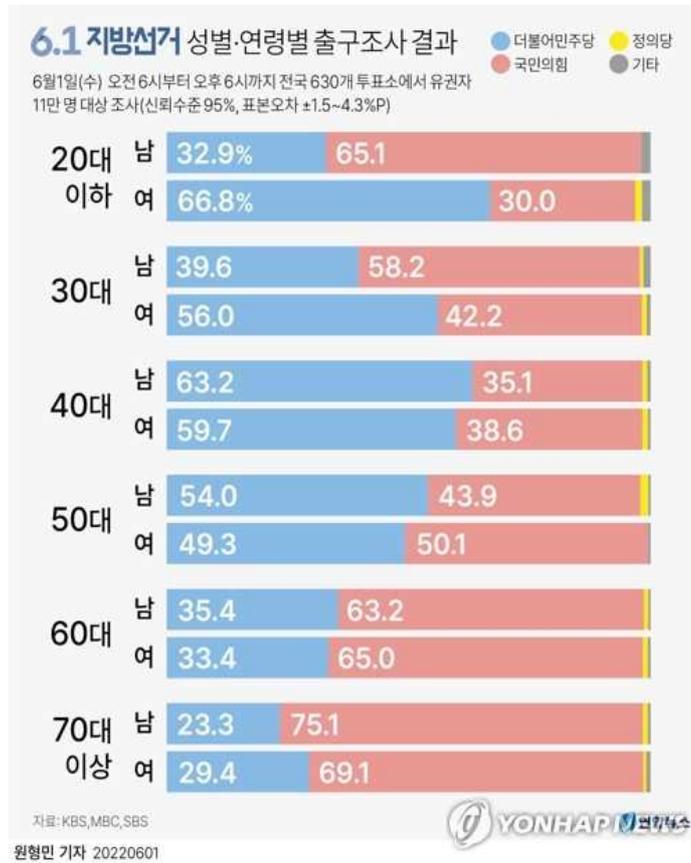
※2012년은 행정안전부 11월 23일 잠정 선거인명부 기준. 2007, 2012년 20대엔 19세 포함.



<표1 | 연령별 선거인명부 규모 변화>

위 표를 보면 각 세대별 느끼는 정치 효능감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현재 Z세대를 대표하는 20대, M세대를 대표하는 30대는 10년이란 시간이 지나자 전체 유권자 투표율 중 차지하는 비율이 약 5%p 감소했다. 반면에, X세대를 대표하는 50대와 부머세대를 대표하는 60대 이상은 전체 유권자 투표율 중 차지하는 비율이 약 6%p 증가했다. 각 세대별 투표율로 나눠서 볼 때 Z세대, M세대는 5년 사이에 투표율이 10%p 감소했지만, X세대는 약 7%p 감소하고 부머세대는 단 2%p만 감소했다. 즉, MZ세대의 정치 효능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지만 X세대와 부머세대의 정치 효능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함을 위 도표를 통해 알 수 있다.

⁶ 중앙일보(2012.12.05), 「2030<5060...세대별 유권자 수 첫 역전」, <https://www.joongang.co.kr/article/10078098#home> (2024.06.13).



<표2 | 이념 분포도⁷⁾>

위 표를 보면 MZ세대는 공통된 정치적 이념이 없는 반면에 X·부머 세대는 공통된 정치적 이념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세대별 정치 효능감이 높을수록 세대별 공통적으로 지지하는 이념이 있다는 증거가 된다. 정치 효능감이 낮은 MZ세대는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때마다 바뀌는 국정기조에 따라 본인이 지지하는 이념이 달라진다. 즉, 이들은 본인이 정치적 환경을 바꿀 자신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정치적 환경에 맞춰가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20대 남성이 우파정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단지 그들이 균 월급 증가, 여가부 폐지 등 본인에게 이로운 정책을 펼쳐서 이지 우파정당을 지지해서가 아니다. 만약, 우파정당이 갑자기 20대 남성의 이익에 위반하는 정책을 펼치게 된다면 그들은 환경에 맞춰 좌파진영을 지지할 것이다. X·부머 세대는 정치 효능감이 높아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국정기조를 본인의 이념에 맞추고자 한다. 즉, 이들은 본인들이 환경을 바꿀 힘이 존재한다 믿고 실제로도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본인의 입맛에 맞게 개혁하려고 노력한다. 과거 민주화 운동의 영향을 받은 X세대는 성별에 무관하게 민주당 지지율이 50%가 넘어간다. 반공정서에 영향을 받은 부머세대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성별에 무관하게 60%가 넘어간다. X세대는 좌파진영의 이념을 계승하여 친서민정책을 기반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잘사는 세상을 꿈꾼다. 고로, 좌파정당이 집권한 대한민국은 정부 보조금 지원, 복지 혜택 증가와 같은 친서민 정책을 펼친다. 반면, 부머세대는 우파진영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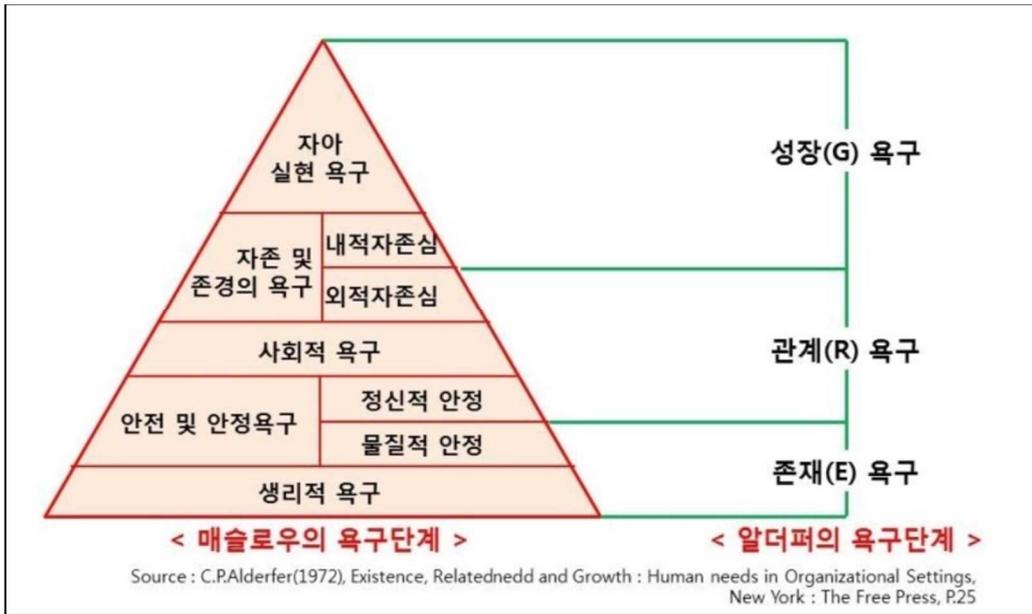
⁷⁾ 배두현(2022.06.02), 「2030세대, 男은 '국힘' 女는 '민주' ...40대 진보-60대 보수도 '고착」, 《헤럴드경제》, <https://biz.heraldcorp.com/view.php?ud=20220602000348> (2024.06.13).

이념을 계승하여 국가의 발전이 곧 본인의 발전이라 보고 국력을 키울 수 있는 요소에 집중한다. 그 예시로 우파정당이 여당이 되면 국방비 증가, 대기업 세금 감면과 같은 정책을 펼친다. 결론적으로, 정치 효능감이 높은 세대는 환경을 본인의 이상 위주로 개혁하고 정치 효능감이 낮은 세대는 본인이 환경에 맞춰간다.

2. 정치 효능감 차이의 원인

세대별 정치 효능감이 다른 원인은 그들이 살아온 환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X·부머세대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험난한 시기에 살아왔다. 부머세대는 6.25전쟁과 독재를 겪었고 X세대 또한 독재시대를 겪고 이후의 민주화 운동까지 겪었다. 이들은 이런 거친 정치적 환경 속에서 본인의 권리를 위해 경제적, 정치적 개혁을 진행해야만 했다. 부머세대는 경제적 개혁을 담당하는 일환으로 본인들이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계획에 직접 참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나라에 경제를 발전시키고 본인들도 잘 살게 되었다는 점에서 강한 공동체 의식을 느낀다. 그리하여 부머세대는 정치 참여도가 높고 과거 산업화 당시 정부의 계보를 잇는 우파정당의 당을 현재까지도 지지한다. X세대는 본인들이 독재자의 억압에 대해 자유로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해 정치적 개혁을 진행했다. X세대는 본인들의 손으로 독재자를 끌어내리고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본인들의 손으로 표현의 자유를 쟁취하고 약자 강자 상관없이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사회를 이룩했다는 점에서 강한 공동체 의식을 지닌다. 또한, 이들은 본인들은 교육받아서 깨어 있다는 의식과 함께 무조건적으로 권위에 복종하는 부모세대와는 다르다는 점을 크게 강조한다. 고로 이들은 평등주의를 추구하고 인간 중심의 사회를 이룰 것을 추구하는 좌파계열의 당을 지지한다. 이들 또한 부머세대와 마찬가지로 본인들의 힘으로 사회 개혁을 이뤄냈기 때문에 정치 효능감이 높고 현재까지도 정치 참여도가 매우 높다.

MZ세대는 이전 세대들에 비하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매우 안정된 환경에서 태어났다. 이미 이전 세대들이 굵직한 개혁들을 이뤄냈기 때문에 이들이 할 수 있는 개혁은 없거나 많은 어려움이 수반됐다. 고로, 이들은 애초에 정치에 낄만한 대의명분이 부재했기 때문에 정치 효능감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전 세대들은 국가가 발전하면 본인의 생활 수준도 발전하는 경험을 했지만 MZ세대는 이와 같은 경험이 전무하다. 오히려, MZ세대의 경우엔 국가의 발전과 개인의 삶의 질이 반비례한다. 이들은 각박해지는 경제상황과 더불어 국가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반대되는 경험을 하지 공동체의식이 약해지고 이는 정치 관심도의 감소로 이어졌다.



<표3 | Maslow의 욕구단계 이론과 Alderfer의 ERG 이론 비교>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인 매슬로의 욕구단계설에 따르면 인간의 욕구는 총 5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하위욕구가 충족되어야 상위욕구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매슬로는 상위 욕구 만족은 하위 욕구 만족보다 더 좋은 환경을 필요로 한다고 했다⁹. 매슬로의 욕구단계론을 더 포괄적으로 해석한 개념이 바로 알더퍼의 욕구단계론이다. 알더퍼는 매슬로의 욕구단계론을 크게 존재, 관계, 그리고 성장욕구로 구분했다. 이를 본고의 세대별 특징에 대입해보면 부머세대는 의식주와 관련된 생리적 욕구 그리고 안전 욕구 중에서도 건강, 범죄로부터의 안전과 같은 물질적 안정을 추구했다. 즉, 부머세대는 사회적 개혁을 통해 본인이 생명체로서 목숨을 지속하고자 하는 욕구인 존재욕구만 충족하면 만족했다. X세대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정신적 안정과 사회적 욕구 그리고 정부로부터 본인의 권리를 인정받는 외적자존심을 채우고자 했다. 이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자 X세대도 현재 사회의 환경에 만족할 수 있었다. MZ세대가 원하는 욕구는 가장 상위 단계의 욕구인 내적자존심과 자아 실현 욕구이다. 즉, MZ세대는 본인들의 정치 참여를 통해 사회를 본인들의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할만한 환경으로 개혁해야 정치적 효능감이 오른다. 결론적으로, MZ세대의 욕구는 그 이전 세대의 욕구에 비해서 정치적 개혁을 통해 충족하기 훨씬 어렵기 때문에 정치적 효능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⁸ 이승우(2019.01.10), 「동기이론, 알더퍼(Alderfer) 'ERG이론(1972)」, 네이버 블로그, <https://m.blog.naver.com/sueya89/221439133928> (2024.06.13).

⁹ 위와 같음.

III. 정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

1. 제도적 방안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출신 배경은 극히 적은 특징으로 한정되어 모든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을 운영하기 부적합하다. 국회의원 중 4.6%만이 40 살 이하이고 5060 대 정치인은 83%에 달한다¹⁰. 또한, 21.3%가 정당인 출신이고 15.3%가 법조계 출신이다. 즉, 현재 정치인들은 대부분 5060 대 전문직으로만 이루어져 있다¹¹. 국회의원들의 임무는 최대한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특정 나이와 계층만을 지닌 사람들이 국정을 운영하게 되면 그들이 이해하고 반영할 수 있는 국민들의 입장은 반드시 한계가 존재한다. 이는 곧 국회 내 외집단 동질성 효과¹²가 발생하는 것을 야기한다.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종류의 국민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본인들과 다른 사람들을 일반화하고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책이 단기지원금 지원에서 끝나는 특징을 지닌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 아이를 낳은 부부에게 반드시 필요한 주택 관련 정책은 펼치지 않고 단기지원금만 지원한다. 또한, 청년들의 취업을 위한 정책으로 노동시장의 양극화¹³와 같은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단기지원금만 지원한다. 만약 제도적으로 청년 정치인 할당제를 도입하여 청년층 정치인이 등장하게 되면 본인들은 청년들과 같은 무리에 속해 있으므로 국회 내 외집단 동질성 효과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년들 스스로도 본인들과 같은 특징을 공유하는 사람이 본인들을 대표하게 되므로 중장년층이 본인을 대표하는 것보다 더 한 정치적 효능감을 느낄 것이다. 정치인 다각화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로 현재 많은 종류의 정치인들이 존재하는 스웨덴이 있다. IPU(국제의원연맹)에 따르면 스웨덴은 의회에서 여성의원 비율이 47로 전세계 7위에 달한다. 반면 대한민국은 국회에서 여성 정치인의 비율이 19%로 전세계 121 위다¹⁴. 또한, 스웨덴 의회의 전체 의석 중 30%를 차지하는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의 이민자 출신 정치 후보자들이 20%인 반면 대한민국에선

¹⁰ L. Yoon(2024.06.13), 「Number of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of South Korea as of June 2024, by age group」,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455112/south-korea-seat-distribution-in-parliament-by-age/> (2024.06.14).

¹¹ 전진영(2024.01.31), 「국회와 주요국 의원의 직업적 배경 비교 : 법조계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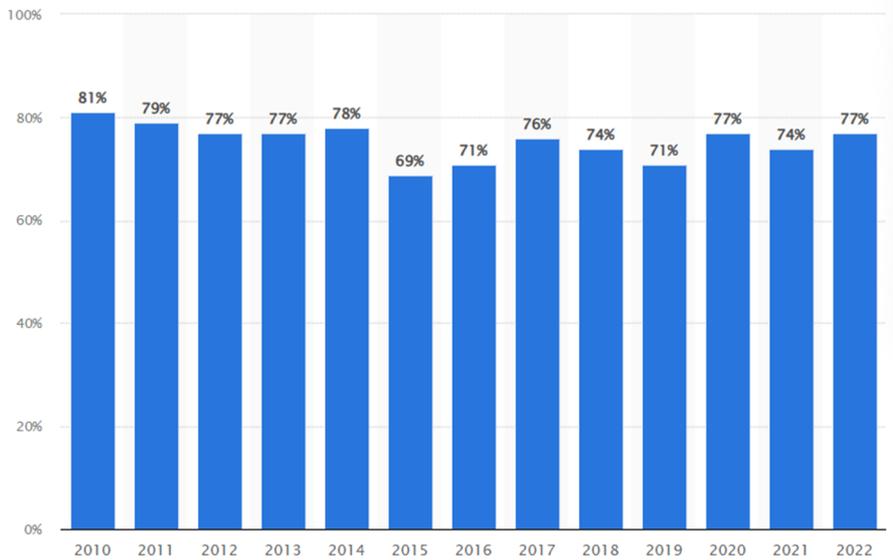
¹² 내집단 인원들의 다양성은 존중하지만, 내집단에 비해 외집단은 더 동질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을 외집단 동질성의 효과라고 부른다.

이지민(2023.03.05), 「"MZ세대는 그래", 당신을 둘러싼 수많은 혐오의 원인」, 《The Psychology Times》, <http://psytimes.co.kr/m/view.php?idx=5763> (2024.06.01).

¹³ 정초원(2015.10.07), 「'헬조선 지옥불반도',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30206> (2024.06.02).

¹⁴ 여성가족부(2023.06.28), 「IPU 여성 국회의원 비율 및 각국의 순위」,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sessionId=bw47r6X8wn51WQJ1erZ4XKoxK6R0YI-DDtwtow_x.node11?idx_cd=1588 (2024.06.14).

외국인이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¹⁵. 스웨덴과 같이 정치인의 종류가 다양하여 많은 종류의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국가는 밀의 표와 같이 정치 효능감이 10년 동안 약 70%가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4 | 스웨덴의 연도별 정치 만족도¹⁶>

2. 사회적 방안

국민 개개인이 본인의 의견을 자유로이 표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면 청년들의 정치 효능감이 증가할 것이다. 이는 개인이 의견을 자유로이 표출할 수 있는 사회가 되면 그 개인의 목소리가 정부의 의사결정에 반영될 가능성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회는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이로 인해 사람들이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대한민국 사회가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한 이유는 한반도의 험난한 역사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한반도는 반도라는 특수한 지리적 환경 때문에 몇 천년 동안 수많은 외세의 침입을 받았으며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강한 영향력을 지닌 집단을 형성해야만 했다¹⁷. 강한 집단 형성을 위해 사람들은 서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봄으로써 자기표현을 억제하고 다른 사람의 의중을 파악하고자

¹⁵ Einar H. Dyvik(2023.12.12), 「Share of political candidates with a foreign background in Sweden as of June 2018, by political party」,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911015/political-candidates-with-a-foreign-background-in-sweden-by-political-party/> (2024.06.14).

¹⁶ Einar H. Dyvik(2023.12.12), 「Share of people that are very/rather satisfied with the democracy in Sweden from 2010 to 2022」,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895962/share-of-people-that-are-satisfied-with-the-democracy-in-sweden/> (2024.06.02).

¹⁷ 원은수(2021.02.09), 「눈치 보는 한국인,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자_차움 정신건강의학과 원은수 교수」, 차움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chaum_plc&logNo=222237640516&categoryNo=37&parentCategoryNo=0 (2024.06.02).

했다. 남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날수록 집단의 힘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모두가 본인의 의중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하고 집단의 목표를 우선시하는 현상이 강해졌다. 눈치문화는 현재까지도 이어져와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눈치 좀 챙겨라”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이와 같이 한국의 눈치문화는 한국인들로 하여금 자기표현을 억제하고 공동선을 우선시하는 특징을 지니게 하였다.

청년들의 정치 효능감을 높이고 건강한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선 눈치문화를 약화시켜야 한다. 이는 국민 개개인이 자기표현교육을 유아기때부터 들으면 해결될 것이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진부한 수행평가를 과제로 내 주는 대신 발표 그리고 토론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개편하여 아이들이 본인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내는 법을 가르칠 수 있다. 이는 아이들이 본인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할 것이고 본인만의 주관도 생성되어 사회적 압박에 영향을 더 적게 받을 것이다. 실제로 토론식 자기표현교육을 유년기 그리고 청소년기 내내 받는 북미 학생들의 경우 설문을 통해 80%가 언어의 순기능은 자기표현이라고 하였고 한국 학생들의 경우 31%만이 언어의 순기능은 자기표현이라고 하였다¹⁸. 결과적으로 한국 학생들도 글쓰기, 토론, 토의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본인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사회가 사람들이 본인의 목소리를 자유롭게 내는 사회로 탈바꿈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IV. 결론

본고에서는 MZ세대의 정치 효능감이 낮은 이유로는 청년들은 역동적인 사회 변화를 겪지 못해 본인들이 정치를 직접 개혁할 기회가 부족했다. 또한, 과거 세대는 국가가 발전하면 본인들의 삶의 질도 나아진 것에 반해 청년들은 국가가 부유해져도 본인들의 삶의 질이 나이지지 않아 공동체 의식이 약화돼 정치 효능감이 떨어진다. 마지막으로, 현재 청년 세대의 지향점인 정치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욕구 충족은 과거 세대의 욕구보다 이루기가 훨씬 어려워 청년들의 정치 효능감을 떨어뜨린다. 이를 타파하기 위한 제도적 방법으론 청년 정치인 할당제를 도입시켜 외집단 동질성 효과를 줄여 청년들의 목소리가 국정운영에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사회적 방법으론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에 서양의 자기표현교육법을 반영하여 의견 표출이 자연스러워지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이 두 가지 방법은 특정 계층으로만 이루어진 정치인과 눈치 보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다수라는 집단들에 의해서 국가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권위주의적 현상을 방지하여 청년층의 정치 효능감을 높인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위의 해결방법은 정치 구조를 개혁 시키고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현실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 효과를 볼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한계점이 있다. 고로, 자기표현교육과 국회의원 할당제를 실행시켜 더 발전된 민주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청년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현실정치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욕구와 강한 자기표현의 욕구를 장기적으로 지니고 있어야 한다.

¹⁸ Heejung S. Kim(2007), 「“Express Yourself”: Culture and the Effect of Self-Expression on Cho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1):1-11,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4p.

V. 참고문헌

- 김재한(2006), 「정치적 세대갈등의 오해와 이해」, 『의정연구』 12-2,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35-155p.
- 김정률(2022.03.09), 「1985년 이후 역대 당선인 득표율은...과반 득표는 박근혜가 유일」,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203090958265500> (2024.06.13).
- 박권일(2018.04.12), 「[박권일, 다이내믹 도넛] 효능감 게임」,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840343.html> (2024.06.01)
- 배두현(2022.06.02), 「2030세대, 男은 '국힘' 女는 '민주' ...40대 진보-60대 보수도 '교착」, 《헤럴드경제》, <https://biz.heraldcorp.com/view.php?ud=20220602000348> (2024.06.13).
- 원은수(2021.02.09), 「눈치 보는 한국인,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자_차움 정신건강의학과 원은수 교수」, 차움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chaum_plc&logNo=222237640516&categoryNo=37&parentCategoryNo=0 (2024.06.02).
- 이재운(2022.09.30), 「2022대선 투표율 분석 결과」,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GYH20220930001000044> (2024.06.13).
- 이승우(2019.01.10), 「동기이론, 알더퍼(Alderfer) 'ERG이론(1972)」, 네이버 블로그, <https://m.blog.naver.com/sueya89/221439133928> (2024.06.13).
- 이지민(2023.03.05), 「"MZ세대는 그래", 당신을 둘러싼 수많은 혐오의 원인」, 《The Psychology Times》, <http://psytimes.co.kr/m/view.php?idx=5763> (2024.06.01).
내집단 인원들의 다양성은 존중하지만, 내집단에 비해 외집단은 더 동질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외집단 동질성의 효과라고 부른다.
- 정초원(2015.10.07), 「'헬조선 지옥불반도',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30206> (2024.06.02).
- 전진영(2024.01.31), 「국회와 주요국 의원의 직업적 배경 비교 : 법조계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2p.
- 여성가족부(2023.06.28), 「IPU 여성 국회의원 비율 및 각국의 순위」,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IPageDetail.do?jsessionId=bw47r6X8wn51WQJ1erZ4XKoxK6R0YI-DDtwtohx.node11?idx_cd=1588 (2024.06.14).
- 중앙일보(2012.12.05), 「2030<5060...세대별 유권자 수 첫 역전」, <https://www.joongang.co.kr/article/10078098#home> (2024.06.13).
- 트렌드모니터(2018.05.30), 「'정치'로부터 다시 거리를 두려는 유권자들? 일상적인 정치에 관심이 필요해」, <https://trendmonitor.co.kr/tmweb/trend/allTrend/detail.do?bldx=1687&code=0404&trendType=CKOREA> (2024.06.13).

- Einar H. Dyvik(2023.12.12), 「Share of political candidates with a foreign background in Sweden as of June 2018, by political party」,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911015/political-candidates-with-a-foreign-background-in-sweden-by-political-party/> (2024.06.14).
- Einar H. Dyvik(2023.12.12), 「Share of people that are very/rather satisfied with the democracy in Sweden from 2010 to 2022」,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895962/share-of-people-that-are-satisfied-with-the-democracy-in-sweden/> (2024.06.02).
- Heejung S. Kim(2007), 「“Express Yourself”: Culture and the Effect of Self-Expression on Cho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1):1-11,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4p.
- L. Yoon(2024.06.13), 「Number of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of South Korea as of June 2024, by age group」,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455112/south-korea-seat-distribution-in-parliament-by-age/> (2024.06.14).